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98호 【루계 제25707호】 주체106(2017)년 7월 17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백두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것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밑에 불패의 사회주의성새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고있다.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이 넘쳐나고 온 세계가 세기를 주름잡으며 위대한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국가핵무력강화의 최고봉을 단숨에 점령한 기세드높이 비약의 폭풍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5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주체101(2012)년 7월 17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것은 우리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백옥같은 충정의 분출이며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기약해준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적전진, 양양한 전도는 력사의 이날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사적인 특대사변들과 세기적인 변혁들로 수놓아진 지난 5년간의 자랑찬 행로를 긍지높이 돌이켜보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만방에 더 높이 떨쳐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온 세계가 한결같이 우러르며 칭송하는 불세출의 위인, 21세기의 태양이시다. 지난 5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져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눈부신 현실로 꽃펴난 영광스러운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이 나날에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위대한 혁명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걸출한 령도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이 남김없이 파시되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5년간 우리 조국앞에는 사상 최악의 역경과 시련이 겹쌓이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정세가 류례없이 엄혹하였지만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억세게 나아가는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는 비상히 빨라졌으며 우리 천만군민의 불굴의 혁명신념과 영웅적기상은 더욱 백배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단호한 결단과 세련된 령도, 천만로고에 의하여 천하제일강국건설이 우리 당이 정한 시간표대로 확신성있게 다그쳐지고 이 땅우에는 사회주의승리의 려명이 밝아오는 위대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로선은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표대이고 강성번영의 휘황한 설계도였으며 그이의 힘찬 발걸음은 젊음으로 약동하는 조선의 숨결이고 무한대한 힘이였다. 보통의 50년, 500년과도 대비할수 없는 격동의 5년을 통하여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더없는 행운을 심장으로 절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드는 길에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는 우리 조국이 강위력한 힘을 지닌 불패의 사회주의로 끝없이 위용떨치게 하는 원동력이다.

지난 5년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정치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억척의 성새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놓았으며 원수님의 탁월한 병군술과 무비의 담력, 사생결단의 애국헌신은 온갖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망동과 미제의 핵전쟁기도를 단호히 짓부시고 주체의 혁강국건설위업실현에서 자랑찬 승리를 안아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자력자강의 정신력과 만리마속도창조운동으로 주체조선의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을 총폭발시키며 세계를 진감시키는 사회주의전진의 동음을 울려 높이 울릴수 있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전대미문의 조국보위전,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이룩된 모든 기적과 승리는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신만고를 다하여 마련해주신 백두산대국의 힘은 불가항력이며 주체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원쑤들의 최후발악은 우리 식 사회주의가 승리하고있다는데 대한 가장 명백한 증명이며 제국주의를 완전히 압도하고 종국적으로 타승할 선군조선의 막강한 힘을 더더욱 증대시키고있다. 시간도 정의도 우리에게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내부와해책동과 핵공갈위협도, 그 어떤 제재와 봉쇄도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영웅적진군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는 우리 조국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차넘치는 인민의 락원으로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생명수이다.

인민은 나라의 근본이다. 인민을 위할수록, 인민의 행복이 커갈수록 혁명대오가 튼튼해지고 나라가 강해진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난 5년간의 혁명실록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전설같은 서사시로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떠받들고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에게 어떻게 하면 세계가 부러워할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줄수 있겠는가 마음쓰시며 멸사복무의 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인민들의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찬눈비도 웃으며 맞으시고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흙먼지날리는 공사장을 찾고 또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하늘길, 대지, 평길을 달리시며 인민들의 웃음,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시고 나라의 재부를 통제로 기울여 인민의 아픔을 가셔주신 원수님의 사랑과 헌신의 세계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인민의 기쁨속에서 혁명하는 멋과 희열을 느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그 어디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에 의하여 오늘 우리 당과 국가활동,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은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으로 되고있다. 인민을 위한것, 인민적인것이 가장 정의로운것으로 되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고있으며 최상의 문명이 평범한 인민들에게 안겨지는 인민의 참된 삶의 보금자리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의 락원은 반드시 일떠서고 이 땅에서 모든 꿈과 리상이 이루어지게 될것이라는것이 위대한 어버이품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이다.

참으로 지난 5년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이 빛나게 계승되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졌으며 인민사랑의 대화원이 펼쳐진 긍지높은 5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백전백승이라는것이 뚜렷이 확증된 영광의 5년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시고있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불패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영원무궁할 주체조선의 높뛰는 심장이시며 천만군민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다.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한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끝까지 함께 하는 당의 참된 전사, 열혈충신이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만능의 백과전서로 삼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실천해나가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며 당중앙의 절대적인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상과 위업, 우리의 힘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필승의 신심을 안고 주체조선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해나가야 한다.

행성을 진감시키는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에는 절세위인들의 강국건설업적이 응축되여있고 우리 인민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슴배여있다. 지난 5년간의 투쟁속에서 나라의 국력을 백배천배로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수 있는 모든 조건과 토대들이 튼튼히 갖추어졌다.

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오직 당밖에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당과 영원히 생사운명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당과 혁명대오의 조직사상적, 도덕의리적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백방으로 강화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서로 돕고 이끄는 일심단결의 대풍모를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일심단결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 당을 절사충위하고 당의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수행해나가는데서 척후대의 영웅적기상을 떨쳐야 한다.

선군의 기치, 병진의 기치를 번함없이 높이 들고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한다. 인민군대를 조선로동당의 군대, 사회주의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조선인민내무군은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칼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 국방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정, 대해같은 은덕을 운명의 피줄기로, 숨줄로 새기고 조선로동당의 권위, 공화국의 존엄, 인민의 안녕이 실린 주체탄의 뢰성을 줄기차게 울려나가야 한다. 온 나라에 원군, 원민기풍이 계속 차넘치게 하여 선군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인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쳐나가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선군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이 투철한 반제계급의식과 주적관을 지니고 만단의 싸움준비를 갖추며 결전의 시각에는 진민항전으로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하여야 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고 문명강국건설을 더욱 분때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만리마대진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사회주의조선의 약동하는 기상을 더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3.18혁명》의 승전포성을 7월의 축포성으로 이어놓은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절사전에 화답하여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주체조선의 영웅신화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나가야 한다. 전형단위들이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해나가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초소와 일터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 온 나라가 만리마시대의 벅찬 숨결로 높뛰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불타는 애국충정과 결사의 각오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대비약적혁신을 일으켜나감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고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전도는 양양하며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필승의 신심드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의사 허옥경은 반일애국렬사유가족으로서 받아안은 당의 은덕에 보답할 한마음안고 매일같이 건설전투에 참가하여 헌신하면서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뜨거운 혈육의 정을 기울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김옥성은 건설장에 여러차례 찾아가 힘있는 경제선동과 물심량면의 지원으로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였다.

룡라도정보기술사 연구사 림현호는 만리마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려명거리를 일떠세우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심정으로 많은 기재들을 마련하여 군인건설자들에게 보내주는 훌륭한 소행을 발휘하였다.

지난 기간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야간지원돌격대활동에 적극 참가해온 경공업성 부원 최은정은 려명거리건설장에도 달려나와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며 공사를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다.

조선인민내무군 군관 박지연은 건설초기부터 불끓는 전투장에서 위훈을 세우면서 많은 기공구와 자재들을 지원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깊이 새겨안고 혁명력사사진문헌사 로동자 윤옥, 광복지구상업중심 로동자 안미향은 건설자들과 함께 사회주의선경거리를 일떠세우는 심정으로 지원사업을 힘껏 벌려였다.

려명거리건설을 통하여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함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금성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통역원 박경진은 불철주야의 총돌격전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에게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지원하였다.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갈 한마음으로 개천철도국 문서원 김광숙은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에 절실히 필요한 물자들을 지원하며 돌격대원들이 만리마속도창조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도록 고무하였다.

중앙위생방역소 산하단위 약제사 김은별은 70층초고층살림집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을 성의껏 원호하였으며 건설컨재풍업성 부원 허만식도 건설을 돕는 일에 공민적량심을 바쳤다.

억만금도 아낌없이 바쳐 최상급의 살림집들을 일떠세워 평범한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간직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최혁철, 대성구역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소 소장 박련옥은 건설을 돕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태양의 성지지구를 인민의 제일락원으로 천지개벽시키는 숭고한 사업에 기여할 열의밑에 청류관 로동자 손정화, 평성시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김경철, 평성시 은덕2동 94인민반 리성희도 려명거리건설지원사업에 앞장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더 높이 발휘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에 적극 헌신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고 장조일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인 국립교향악단 단장 장조일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16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만민이 우러러따르는 불세출의 위인

《김정은각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의 반영이다.

김정일각하와 선군장정의 길에 함께 계시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인민군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천출명장으로서의 천품과 자질, 풍모를 최상의 경지에서 완벽하게 체현하신 김정은각하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시다.》

이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 소식에 접한 베네수엘라 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두가 격정에 넘쳐 터친 심장의 토로이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 강인담대한 의지와 배짱으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시며 세계정화와 정의를 굳건히 수호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는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승리만을 떨치고계신다.

김정은동지이시야말로 뛰여난 정치실력과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온 세계가 우러르는 천출위인을 높이 모신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대표단 단장 겐나지 꼴리꼬브는 평양으로서의 뛰여난 지략과 령군술을 지니시고 정치와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정통하신 김정은동지와 같으신분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다, 그이는 만민이 우러러따르는 불세출의 위인,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그이의 존함만 들어도 미제와 세계반동들은 공포에 떨고있다고 말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인데르스 크리스텐센은 이렇게 피력하였다.

선군혁명령도로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조선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여가시는 김정은각하는 천하제일명장이시다.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선군조선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로씨야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싸쉬 우말라또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는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배짱을 지니신분이시다.

인류는 무비의 담력으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쉬락쉬락하시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끝없는 존경의 마음을 안고 그이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세계정치호름을 주도하시며 시대와 인류앞에 거대한 업적을 이룩해가시는 김정은동지는 진정한 애국자,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이시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순천린비료공장건설착공식 진행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나라의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순천린비료공장이 새로 일떠서게 된다.

린비료공장건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순천린비료공장건설착공식이 16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착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만세!》,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만세!》 등의 구호판들이 착공식장에 세워져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동지,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두철동지, 평안남도당위원회 위원장 박태성동지, 동정호내각부총리, 강형봉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순천시안의 근로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하였다.

착공식에서는 장길룡화학공업상의 착공사에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가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으로 커다란 환희와 격정에 넘쳐있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자력자강의 위대한 통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고있는 시기에 순천린비료공장건설착공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적인 비료공업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흥남과 남흥의 대규모비료생산기지들을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켜주시기 위해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화학공업의 기술개건을 다그치며 국내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화학제품생산기지들을 전망성있게 건설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여러차례에 걸쳐 린비료생산을 늘일데 대한 귀중한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건설력량과 설비,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공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건설자들과 일군들이 미제의 야만적인 초강도제재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만리마의 속도로 힘차게 내달려 무진막강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설계하면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군대의 혁명적인 군인정신을 따라배워 맡겨진 건설과제를 일별, 주별, 월별로 무조건 수행하며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립장에서 모든 건설물의 질을 완전무결하게 보장함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전투조직과 지휘를 합리적으로 짜고들고 공사속도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새롭고 능률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심화시켜 만리마속도창조의 열기로 온 건설장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현환단위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건설공사를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건설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함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충정의 보고를 드릴 승리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린비료공장건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착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천하제일명장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신 업적 천추만대에 빛나리

5년이 흘렀다.

이 행성과 반만년민족사에 미증유의 흔적을 남긴 력사의 갈피를 더듬어보는 우리의 눈앞에 강렬하게 어려오는것이 있다.

누리를 진감시킨 주체의 핵폭성, 대륙간탄도로케트섬광!

백두산대국의 영용적기상이 여기에 다 어려있다. 그 위상은 령도자의 위대성이자 국력이고 민족의 존엄이며 번영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격조높이 선언하고있다.

그렇다. 천하제일명장을 높이 모시여 우리 공화국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주체의 핵강국,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얼마나 기적적인 비약인가. 얼마나 승리자의 희열로 충만된 영용적인 시대인가.

돌이켜볼수록 민족사적대승리를 다계단으로 안아오시며 주체조선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최대의 높이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한없는 매혹과 경탄으로 천만의 심장 불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것은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고수하며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가 진행되였던 그날이 잊혀지지 않는다.

전쟁전야로 치닫고있는 나라의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회의에서 내리신 중대결단은 무엇이였던가.

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면서 그 정당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고나서 강위력한 핵무력우에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으며 인민들의 행복한 삶도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오늘 우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자기의 신념과 의지, 배짱에 따라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할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치시여 마련해주신 강력한 핵억제력이 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함께 핵무력건설을 절대불변의 로선으로 틀어쥐고 핵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절대불변의 로선으로 제시, 핵억제력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문제를 법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강철의 신념과 의지,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우리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용단이였고 핵위협공갈에 기초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다.

병진의 기치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놓아가신 선군령도의 자욱자욱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그길에는 포연서린 훈련장에서 오랜 시간 인민군부대들의 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해주신 날도 있고 조선인민군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술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며 주체적인 로케트전법을 적용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날도 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면서 력사적으로 된 배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였고 미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였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말씀은 오늘도 천만의 심장을 높뛰게 한다.

력사의 그날 미제의 멸망을 선언하며 날아오른 로케트의 폭음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신 전승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시려는 천출명장의 철석같은 의지의 메아리였다.

2016년 정초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의 장엄한 뇌성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세계는 죽가마끓듯 하였다.

《조선이 2013년에 3차핵시험을 진행하고 이렇게 빨리 수소탄시험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 《조선은 평실상부한 핵무기보유국, 수소탄보유국이 되였다.》, 《단 한방으로 미국의 동부 뉴욕이나 워싱톤같은 대도시를 재가루로 만들수 있다.》…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과 더불어 전해지는 우리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을 우리는 잊을수 없다.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수소탄제작을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때로는 자정이 넘은 깊은 밤 일군들에게 다른 나라의 기술을 답습할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우리 식으로 개발할데 대한 새로운 표책도 힘겨주시고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시며 그이께서 기울이신 헌신과 로고가 얼마인지 어이 다 알수 있으랴.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새해의 진군길을 힘있게 내짚은 우리 조국의 기상에 얼혼이 나가 무분별하게 날뛰는 미제에게 숨돌릴새없이 련속강타를 안기신 선군령장의 령도는 참으로 비범한것이였다.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 등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식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취해졌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의 성공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큰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대로 필요한만큼 생산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한 민족사적인 쾌승이였다.

이 격동적인 사변들은 원쑤들에게 들의우는 섬뜩적인 불세례였고 우리의 승리를 경축하는 환희로운 축포성이였다. 승리도 보통승리가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드는 대승리, 너무도 짧은 기간에 세상을 깜짝 놀래우는 기적적인 승리만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조국은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강국으로 지구우에 우뚝 솟아오를수 있었던것이다.

올해에 들어와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더더욱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강화되였다.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우리 식의 대출력발동기시상분출시험을 보시며 우리 원수님 얼마나 만족해하시였던가.

이번 시험에서의 성공은 명실공히 개발창조형공업으로 확고히 전변된 주체적인 로케트공업의 새로운 한생을 선포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대사변이라고, 로케트공업발전에서 대비약을 이룩한 오늘은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 《3.18혁명》이라고도 칭할수 있는 력사적인 날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그날의 그이의 음성이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우리 조국의 강대함을 더해주는 주체탄, 주체무기들이 련이어 탄생하였다.

《3.18혁명》이 불러온 특대사변인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또 얼마나 온 세계를 진감시켰던가.

거대한 섬광, 경축의 불보라인양 아름답게 새겨지는 로케트의 하얀 비행은…

이 통쾌한 대승리의 광경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이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성공소식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은 세차게 들먹이였다.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걸으신 핵무장력강화의 길을 이어가시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우리 식 전략무기체계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우리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눈굽을 적시였다.

자신께서 로케트를 사랑하는것은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며 한밤중에도 이른새벽에도 아슬아슬한 시험발사현장을 찾고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걸사대 앞으로!》의 구호를 맨 앞장에서 선창하시는 제일기수가 되시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신 그런 령도자가 과연 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 있었던가.

정녕 대륙간탄도로케트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과 헌신의 응결체, 그이의 천만고생과 맞바꾼 위대한 헌신의 산아이다.

력사는, 후손만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핵강국건설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며 우리 조국을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민족사적대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길이 전해갈것이다.

주체의 핵보검의 위력이 날로 최강으로 다져지고있다. 우리 조국은 아득한 높이에 올라섰으며 헤아릴길 없는 이 힘이 또 어떤 사변을 불러올지 누구도 알수 없다.

불세출의 명장의 우렁찬 선언이 시대의 메아리가 되여 울려퍼지고있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가 핵을 포기하기 바라는데 그것은 삶은 닭알에서 병아리가 까나오기를 기다리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핵을 포기할것이 아니라 핵무력을 억천만배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세길수록 우리 원수님이시야말로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시라는 확신으로 천만군민의 가슴 세차게 달아오른다.

그렇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승리이며 그이따라 나갈 때 천하제일강국은 반드시 일떠설것이다.

지나온 5년이 이것을 확증하였고 찬란한 래일이 이것을 증명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성 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언해설

《우리의 핵억제력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수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명언에는 우리가 보유한 강위력한 핵억제력의 사명과 성격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핵의 발견은 인류의 문명과 발전을 위한 과학연구의 산물이다. 하지만 그것은 제국주의렬강들의 독점물로 되여 힘의 절대적우세를 차지하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여왔다. 오늘에 와서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독재의 핵을 무자비하게 짓부서버릴수 있는 최강의 무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조선인민이 틀어쥔 정의의 핵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의 보검이다.

자주권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며 오늘날 이것은 강한 핵억제력에 의해서 담보된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핵을 포기한탓에 하루아침에 국권을 잃고 나라전체가 내란의 아수라장으로 화한 리비아의 비극적참상이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민족은 장장 수십년세월 미제의 략공갈과 위협을 직접 받아왔으며 그로 인하여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오늘 우리의 신성한 제도와 삶의 모든 명역을 찬탈하려는 미제의 핵전쟁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우리의 핵보유는 장구한 반미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의 필연적귀결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자면 자위적핵보검을 억세게 벼려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인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는것이 우리 조국강토에 들씌워질 핵전쟁의 참화를 막을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믿음직한 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핵선제타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미제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멸치려들 때에는 주저없이 핵으로 먼저 냅다 칠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지난날 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수난많던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숙명론은 이미 과거사로 되였다. 세계는 자위의 핵보검,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수 있는 막강한 핵공격능력을 갖춘 우리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권을 당당히 지켜나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보검이다.

전쟁이 없는 세계에서 평화롭게 살려는것은 전인류의 희망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핵억제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평화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1991년의 만전쟁과 2003년 이라크전쟁 등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세계도처에서 강요된 수많은 류혈참극이 새겨주는 력사의 교훈이다.

오늘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이로써 우리 조국과 민족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지역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직전까지 줄달음쳤던 최악의 사태들이 평정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우리 공화국이 동방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으로 위용떨치기 때문이다.

현실은 우리의 핵보유가 얼마나 정당하고 옳은 선택이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명 주 혁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치시던 나날에

뜻깊은 해에 소집된 대회

지난해 8월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흠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가 열리였다.

대회장에 펼쳐졌던 격동적인 화폭이 우리의 눈앞에 뜨겁게 어려온다.

돌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증시하시고 이끌어오신 군대중운동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하시며 전군이 항일의 7련대, 전화의 근위부대가 될데 대한 불멸의 대강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그이와 심장의 박동도 숨결도 하나가 될 의지로 가슴 불태우던 대회참가자들…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에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나팔소리 우렁차게 울려가던 오중흠7련대처럼, 당과 수령을 위하여 근위군기를 휘날리며 원쑤격멸의 격전장을 누비던 전화의 근위부대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쌓고 노도와 같이 달려나갈 열기가 장내에 차넘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군에 오중흠7련대칭호쟁취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신 2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소집된 대회소식은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이후 인민군대의 첫 대회인것으로 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대회참가자들이 목청껏 터친 만세의 환호성,

그것은 오중흠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당군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조선인민군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만이 있을것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장쾌한 메아리였다.

전투훈련을 경기형식으로

몇해전 1월 어느날이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날에 있은 인민군구분대들의 포사격경기를 화제에 올리시였다. 그러시고 최근에 각종 전투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는 과정에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이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싸움준비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였다고, 그러나 우리는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싸움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인민군대안에 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기 위하여 올해에도 부대들사이, 지휘성원들사이의 각종 경기를 많이 조직할 생각입니다. 전투훈련도 경기형식으로 진행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이의 뜻깊은 말씀을 외워보는 지휘성원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무릇 경기란 누가 이기고지는가 하는 승부를 가르는 치렬한 경쟁이다. 그런것만큼 경기에 참가하는 단위, 성원들이 자기 단위, 자기의 명예를 걸고 우승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정열적으로 훈련하고 새로운 훈련방법들을 창안도입하면서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된다. 이 과정에 평시에는 도달할수 없었던 높은 경지의 전투능력을 소유하게 되며 훈련의 질이 끊임없이 높아지게 된다.

전투훈련을 경기형식으로!

지휘성원들은 군인들의 전투능력을 제고하고 훈련의 질을 높일수 있게 하는 우월한 방법을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경모의 정으로 가슴적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최후승리는 반드시 이룩될것이라는 신심과 락관이 세차게 굽이치는 철의 대하 본사기자 김 종 훈 촬영

한마음한뜻이 되여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 5돐에 즈음하여

우리에게는 원수님이 계신다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5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천만군민은 우리모두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공화국의 원수로 높이 모시고 승리떨쳐온 5년세월을 되새겨본다.

얼마나 긍지높은 나날이였던가.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분초가 다르게 눈부신 전변을 이룩하며 흘러온 격동의 하루하루였다. 남강도 미제의 전대미문의 군사적압박과 야만적인 제재봉쇄속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혁혁한 성과들과 이 땅우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흘러온 격동적인 이 나날에 천만군민이 가슴속깊이 새긴 력사의 진리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령장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갖춘 백두산형의 장군입니다.》

지난 4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되였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치며 힘차게 행진해가는 조선인민군 병종, 군종의 열병종대들과 우람한 동음높이 지축을 울리며 전진하는 각 군종로케트종대들을 비롯한 첨단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장비된 기계화종대들…

무적필승의 위용떨치며 나아가는 최정예혁명강군의 신심에 넘친 모습에 만족을 표시하시며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는 우리 천만군민의 얼굴마다에는 이름할수 없는 격정이 뜨겁게 굽이쳤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던 첫해 정초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걸고걸으신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남강도 미제와 추종세력들은 그 무슨 《급변사태》요, 《체제붕괴》요 하는 헛나발을 불어대면서 전대미문의 군사적위협공갈과 야만적인 경제적제재를 악랄하게 감행해나섰다. 우리는 누구의 지원이나 방조도 없는 속에서 해지여 달려드는 포악한 제국주의자들과 단독으로 맞서싸워야 하였다.

력사의 온갖 도전을 맞받아 전인미답의 험로역정을 뚫고 나가야 하는 시련의 그 시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시였다.

힘에 의한 강도적인 론리가 지배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사생결단을 각오해야 하는 로선이였다.

필승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 드센 배짱을 지니신 강철의 령장이시며 만고의 영웅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강인담대한 결단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제와의 그 어떤 전쟁도 두렵지 않다는 결사의 의지로 조국수호와 새로운 병진로선의 관철을 위하여 사시장철 전선길에 계시였다. 포연서린 훈련장에서 오랜 시간 인민군부대들의 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해주기도 하시고 직아대전의 최전방인 판문점초소와 오성산의 까칠봉초소에까지 나가시어 병사들에게 무비의 용맹을 안겨주기도 하시였다. 몸소 어뢰정에 오르시여 해병들의 전술훈련을 지도해주시였고 27㎞의 작은 목선에 오르시여 풍랑사나운 바다길을 헤치시며 장재도와 무도에까지 나가시여 전군을 조국절사수호와 싸움준비완성에로 산악같이 불러일으키시였다.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제시하시고 백두의 훈련일동과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이끌어주시며 군종, 병종들의 다격훈련과 력사적인 대회들도 지도해주시면서 백승의 지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오늘 모든 인민군군인들이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천대전의 능수, 진짜배기싸움군들로 자라나고 인민군대의 군사적위력이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최강의 경지에 올라서게 된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세해전 전승절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언하시였다.

력사적으로 된때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였고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였다고, 어길수 없는 이 법칙적인 두 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라고.

그렇다. 강철의 령장을 모시여 우리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전통은 영원하다.

올해에만도 이 땅에서 일어난 민족사적사변들은 그 얼마나 가슴후련하게 세계를 진감시켰던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성공에 이어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지난 7월 4일 충격적인 소식이 또다시 온 세계에 울려퍼졌다.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이룩한 주체조선의 위대한 승리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 성공…》

순간 이 나라 하늘과 땅, 바다 초소들과 일터와 거리, 마을과 가정들에서 터져오른 《만세!》의 함성은 세계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정치적공갈과 경제봉쇄책동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으로 덫 안되는 핵무기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전략잠수함 탄도탄보유국으로 급상승시키신데 이어 또다시 이 형성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령도하여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우리 천만군민이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우리의 운명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다.

우리 조국에서 일어난 세기적인 기적들은 불세출의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받아안은 조선의 행운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여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라는것이 지난 5년동안 세계의 면전에 뚜렷이 확증된 력사의 진리이다.

본사기자 김 치 곤

뜨거운 샘줄기

우리 인민의 생활속에서 솔절처럼 울려나오는 말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이 전해질때면 어디서나 뜨겁게 울리고 그이를 만나뵈온 사람들은 눈물이 글썽하여 더욱 절절히 터놓군 하는 부름이다.

우리 원수님!

그 부름이 어이하여 우리 인민들속에서 스스럼없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하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의 정치적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봐주어야 합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강서약수공장을 찾았던 우리는 약수터의 원수장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원수장에서 공장의 일군은 용솟구로 끊임없이 뿜어오르는 샘줄기를 가리키면서 이야기했다.

《우리 원수님께서 생산에 리용하지 못하는 약수도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다 리용하여야 한다고, 약수로 목욕을 하면 건강에 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흘려보내면 약수마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리용하도록 해주시였습니다.》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니 인민들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위해 마음쓰시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어려와 불덩어리를 안은듯 가슴이 달아올랐다.

강서약수만이 아니다.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은 온 나라 곳곳에 흘러넘치고있다.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위하여 걸고걸으신 우리 원수님의 헌신의 길들이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거대한 샘줄기마냥 어려왔다.

인민들이 건강하여 사회주의만복을 누리도록 하여주시려고 병원들을 하나하나 일떠세워주신 사연들은 또 얼마나 감동깊은것인가.

보천산소를 싣고 수도의 거리로 들어서는 운반용차들을 볼때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보건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현대적인 보건산소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공장의 터전도 명당자리에 잡아주시였으며 착공후에는 몸소 건설장에까지 가시였다.

그렇게 세심히 지도해주시여 멋젊이공장이 일떠섰을 때에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세상에 없으신듯 또다시 찾아오시여 생산품을 보아주시였다.

그이의 마음은 자식들에게 새 가정을 꾸려주고 살림을 하나하나 늘여주는데서 보람을 찾는 어머니심정이시였다.

아니 어머니라는 말로는 비길수 없는 대해같은 사랑이였다.

지난 5년동안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인민의 보금자리들만 하여도 이루 다 꼽을수 없다.

릉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류경원, 과학기술전당, 행복의 금방석들인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이 모든것은 하나를 해주시면 열백을 더 해주고싶으시여 그리도 마음을 많이도 쓰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의 샘줄기에 뿌리를 둔 거목들이였다.

올해에도 온 나라를 들썩하게 한 려명거리의 새집들이충바다, 도처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들, 전쟁로병보양소들, 평양가방공장…

그 많고많은 창조물들을 세워주시느라 바쳐오신 헌신의 땀방울은 그 얼마이랴.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어느것이나 꼭 하고싶은 일로 여기시고 실천해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은 마를줄 모르는 샘줄기마냥 이 나라 집집에 뜨겁게 흘러들고 창가마다에서는 행복의 노래소리, 고마움의 메아리가 끝없이 울려나온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본사기자 최 유 일

총대가정들이 전하는 사연

세 녀병사의 어머니

서흥군 청포협동농장 농산제6작업반 2분조장 김봉희동무를 가리켜 사람들은 세 녀병사의 어머니라고 부르고있다.

그의 딸들은 학교가 자랑하는 모범학생들이였다. 하여 중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상급학교추천을 받군 하였다. 그때마다 김광현, 김봉정정한 사판이 되여 곧 군판학교에 가게 되였으며 셋째딸 현경이는 중대가 자랑하는 모범군인의 영예를 지니였다. 누나들처럼 인민군대가 되겠다는 막내아들 창봉이의 소원이 성취되면 김봉희동무는 자식 넷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어머니가 된다.

이런 남다른 자랑과 긍지를 안고 그는 원군사업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최부부는 무등 기뻤으나 세 딸을 차례로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냈다. 조국이 있고서야 가정의 행복도, 자식들의 미래도 있다고 그들부부는 생각했던것이다.

세 딸들은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맏딸 최경이는 어엿한 조선로동당원으로, 조선인민군 군판으로 자랐고 둘째딸 윤경이는

고향의 당부

명천군 마산협동농장 제3작업반 최청수, 주금옥부부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인민군대후방가족이다. 그들의 집에는 4개의 조선인민군입대증이 있다. 하나는 군사복무의 나날을 충정과 위훈으로 빛내인 최청수동무의것이고 나머지는 그의 세 자식들의것이다.

철들기 전부터 고향의 귀중함과 조국의 은혜로움을 실생활을 통하여 느끼며 자란 자식들에게 그들부부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따사로운 품은 다름아닌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라는것을 깊이깊이 새겨주었다.

우리 가정의 행복도, 부강조국의 앞날도 총대에 의해 확고히 담보된다고 하는 부모의 간곡한 당부를 가슴에 새긴 자식들은 중학교를 졸업하자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로 달려갔다.

초소에 선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최청수, 주금옥부부는 천만의 심장인 경애하는 원수님을 총대로 절사옹위하는 길에서 언제나 제1번수가 되라고 열렬히 당부하는것을 잊지 않고있다. 자식들에게 떳떳하기 위해 그들부부는 농사일에 헌신하고있다.

오직 이길뿐이다

남포시 항구구역 초도리 류선봉동무의 가정은 온 마을이 자랑하는 총대가정이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네 딸들모두가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를 지켜선것이다.

어릴 때부터 류선봉동무의 딸들은 군복입은 아버지처럼 손에 총을 잡고 조국을 지키는 초병이 되리라 속다짐하며 자랐다.

류혜금, 류옥임, 류옥천, 류옥명 네 자매는 중학교를 졸업하자 차례로 손에 혁명의 무기를 잡았다.

공부를 잘하기로 소문난 막내딸 옥명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사람들은 세 딸이 혁명의 군복을 입었는데 그애만은 대학에 보내는것이 좋지 않겠는가고 했다. 하지만 류선봉동무와 안해는 귀여운 막내딸을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냈다. 대학공부를 해도 조국보위초소에서 조국의 귀중함을 심장으로 느낀 병사가 더 잘할수 있다는것이 그들부부의 생각이였다.

선군의 길에 가정의 행복도, 자식들의 미래도 있다!

이것은 그들부부가 초소의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마다에 늘 쓰는 구절이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우리 식 사회주의는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 수도의 하늘가에 메아리친다. 본사기자 리 충 성 찍음

병사들의 고향에 넘치는 자랑

순천구두공장 종업원들의 생활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입니다.》

초소의 병사들이 기다리는 고향소식!

그것을 전하고싶어 우리는 얼마전 순천구두공장을 찾았다. 인민군대후방가족이 많은데다가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 단번성공소식이 전해진 순간부터 공장 후방가족들의 생산열의가 더 높아졌다는 지방위원회일군의 말이 우리의 걸음을 그곳으로 이끌었던것이다.

우리가 생산의 동음높은 공장구내에 들어섰을 때였다.

한여름의 록음이 시원한 그늘을 먼저주는 공원에 많은 종업원들이 모여서서 흥성이고있었다. 알고보니 로동안전원 황성철동무가 초소의 아들에게서 받은 편지를 한창 돌려가며 읽는중이였다. 편지와 함께 날아온 황성철동무의 아들 황철범동무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누구나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초소로 떠나면게 엊그제같은데 벌써 9년세월이 흘렀구만요.》

《군사복무생활이 퍽 좋은것 같아요. 보세요. 얼마나 억세고 튼튼해졌는지.》

저마끔 하는 귀맛좋은 이야기에 황성철동무는 시종 웃음을 거둘줄 몰랐다.

초소에서 소식이 날아올 때마다 한자리에 모여앉아 함께 기쁨을 나누는것은 이들의 례사로운 생활이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혁신자로 자랑높은 공장의 후방가족들을 만나보았다.

기사장 김익철동무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신련작업반 로두공 현원호동무였다.

30년째 공장에서 일해오는 그는 제대군인이며 고급기능공이다. 구두생산의 첫 공정을 맡고있는 그는 하루계획을 120-140%로 넘쳐 수행한다고 한다. 현원호동무는 얼마전 기념비적창조물건설에 참가하였던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었다고 자랑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려명거리건설장에서 만났던 병사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휴대전에 혹 자기의 부모들을 만나게 되면 아들걱정은 말라고, 병사는 오늘도 임무수행중에 있다고 전해달라던 병사들속에 그의 아들은 없었는지, 하여 우리는 려명거리건설장에서 만나보았던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모두들 제 자식의 소식을 듣듯 귀를 강구는 그들의 모습에서 초소에 자식을 세운 부모들의 마음은 하나같다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였다.

우리는 수지원료직장에서 21년째 일해오고있는 혁신자 리철동무도 만나보았다. 직장당세포위원장인 그에게는 2명 아니 3명의 아들이 있다. 제대군인맏아들과 최전연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둘째아들 리진성 그리고 지난해 평성중등학원을 졸업하고 공장에 배치된 김충일.

리철동무는 무모없는 총일이들 아들처럼 돌봐주고있었다.

《저도 그렇고 공장에서 20년째 일하고있는 우리 집사람도 최전연에서 군사복무하는 진성이에게 뗏뗏이 살고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부부는 공장에 만근하며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지 못하면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 단번성공소식을 전해듣고 공장의 후방가족들의 사기가 더욱 충천했다고, 우리 원수님의 병사들인 자식들앞에 뗏뗏하겠다고 서로들 말없는 경쟁을 벌리고있다고 말하였다.

어찌 그뿐이랴. 18년간 공장에서 일해오고있는 공부동력과 설계원 성기봉동무도 아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후방가족이였다. 그는 얼마전에 아들에게서 받은 편지를 우리앞에 내놓았다.

《장화물분쇄기를 공장에서 새로 제작하였다는 아버지의 편지를 반갑게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설계를 하느라 아버지가 늘 바삐 산다는것도,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일하는 동생 윤경이가 맡은 일을 잘한다는 소식도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였습니다.…》

초소의 병사들에게 새 힘을 주고 불타는 충정과 애국심을 심어주는 고향소식, 창직장, 주문작업반, 기술과, 생산과를 비롯한 공장의 여러 단위 후방가족들도 자기들의 혁신의 자랑을 터놓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모든 자랑을 황성철동무의 아들에게 보내는 회답편지에 쓰고싶다고 했다.

많고많은 자랑이야기를 다 편지에 담자면 몇십장을 써도 모자랄것 같다는 우리의 말에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였다.

《앞으로 만려마시대 인민군대후방가족답게 우리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더 많은 일을 하겠으니 우리들의 마음을 푸지면에 담아주십시오. 초소의 우리 아들딸들이 다 보게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여있는 당부를 초소의 병사들에게 전한다.

최세의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을 받들어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라고, 군무생활에서 모범을 보인다는 초소의 소식이 늘어날수록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고향집부모들의 자랑편지도 늘어날것이라고.

본사기자 오 은 별

이 세상 끝까지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것은 위대한 선군령장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이며 최고령도자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힘있는 과시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천하제일명장이시라는것을 절감하고있다. 특히 세계를 진감시킨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소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행운과 영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일편단심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병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고있다.

우리 탄광의 전체 일군들과 탄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석탄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해나가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여주신대로 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장들의 석탄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결사전을 벌려나가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락원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애국으로 불타는 우리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있는 한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천성청년탄광 지배인 조 철 호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 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 500만 청년전위들의 심장은 세차게 높뛰고있다.

지난 5년간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에 의하여 조선청년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난 자랑차고 긍지높은 나날이였다.

우리 청년들에게 큰 일감들을 통채로 맡겨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뜻깊은 대회들과 경축행사들을 조직하도록 해주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모두의 가슴속에는 몸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이런 험한 곳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혹한속에서 거창한 대상건설을 한다는것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고 완공의 그날 또다시 발전소건설자들을 찾아오시여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높이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애로운 영상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들처럼 령도자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청년들은 없다.

우리 청년들은 존엄높은 김일성, 김정일청년강국의 주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로 튼튼히 준비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장에서 노도와 같이 달려나가겠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부장 최 금 철

당의 부름에 이 한몸 아낌없이 바치리

지난해 12월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들을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로 온 나라에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그 사랑, 그 믿음속에 평범한 로동자에 불과하였던 내가 온 나라가 다 아는 선군시대공로자로 되였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지난 5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이를 우리 원수님이라고 스스럼없이 부르며 따랐고 그 위대한 부름을 심장속에 간직하고 날에날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아로새기며 줄기차게 전진해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자강력의 강자들로 자라난 우리 강원도인민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를 한마음으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나는 선군시대공로자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이 가리키는 오직 한길로 꿋꿋이 걸어나가며 강원땅에 자력자강의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는데서 선봉투사가 되겠다.

하여 온 나라에 강원도정신이 나래치게 하는데서 불씨가 되고 선구자가 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원산화학공장 불솜직장 로동자 송 철 수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전형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공화국국장에 우리 발전소가 새겨져있다

전력공업부문의 맨 앞장에서 내달리는 수풍발전소 로동계급의 투쟁위훈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선구자가 될 명세를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수풍발전소 로동계급은 7개월이상이나 앞당겨 년간 발전설비대보수과제들을 질적으로 끝내고 6월 11일에 상반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한데 이어 현재까지 무려 6 700만kWh이상의 전력을 증산하는 눈부신 로력적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올해 상반년기간 전국적으로 예년에 없이 비가 적게 내린 사정은 수력발전부문앞에 심각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6월에 우리 나라 굴지의 대동력기지인 수풍발전소의 수위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m이상이나 낮아졌다.

그러나 수풍의 전력생산자들은 결사관철의 투쟁기풍과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과학적인 수위조절방법과 발전기대들사이의 최량부하분배방법을 창안도입하고 발전기현대화에 드센 박차를 가하며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다 바치였다.

하여 총전보다 운영효률을 1.1%이상 더 높이고 연 4 200여만㎾h의 물을 절약함으로써 가물철에도 발전기의 동음을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간한 큰 발전소의 생산량과 맞먹는 전력을 증산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있는 발전소의 고귀한 영예를 만리마시대에도 자랑스럽게 빛내일 결사의 각오로 전례없는 승리를 거둔 수풍발전소 로동계급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은 나라의 동력초소를 지켜선 전국의 전력생산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주고있다.

전세대들이 우릴 지켜본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크나큰 격정과 환희속에 받아안은 수풍발전소의 로동계급모두가 백두산3대장군의 현지교시판, 현지말씀판앞에 숭엄히 섰다.

당창건 첫돐이 되는 뜻깊은 그날 수풍발전소를 몰소 찾으시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공화국창건의 나날에는 우리 공화국이 강위력한 공업강국으로 전면적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며 그 상징으로 다름아닌 수풍발전소를 국장에 새겨넣도록 하신 어버이수령님, 백두산녀장군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발전소를 찾으시였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세 세기의 첫 1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풍로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거듭거듭 안겨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그 모습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공화국국장에 우리 발전소가 새겨져있다는 영예와 긍지를 심장에 새겨안고 수풍의 로동계급은 전쟁의 불비속에서 전력증산의 동음을 지켜냈고 위대한 천리마시대에는 최고생산기록을 련이어 갱신하며 해마다 수십억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는 2발전직장을 조업하여 전국의 수력발전소들중에서 제일 큰 발전능력을 갖추어놓았다.

전력증산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받들어온 전세대들이 우릴 지켜본다. 존엄높은 공화국국장에 새겨진 발전소의 오늘날의 주인들인 우리가 마땅히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맨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자!

전국의 초행길에서부터 장장 반세기이상 30여차례나 발전소를 찾아주신 백두산3대장군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전세대들의 넋을 이어 만리마시대의 위대한 창조자이시며 향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전력증산으로 결사옹위할 애국충정의 맹세가 활화산마냥 분출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발전소에 새기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종업원들 모두가 실생활속에서 매일, 매시각 새겨안고 전세대들이 지니였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1발전직장에 내려간 초급당일군들인 리순철, 조춘일동무들이 근무교대를 진행할 때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기동단추를 눌러주신 뜻깊은 사적기대인 105호발전기앞에서 해설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 전세대들의 투쟁위훈을 다시금 되새겨줌으로써 모든 생산자들이 충정의 결의안고 증산전투에 진입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였다.

비록 몸은 평양과 멀리 떨어진 서북변의 압록강기슭에 있어도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이어놓고 만리마시대에도 수풍의 자랑찬 력사의 페지를 새겨갈 각오로 떨쳐나선 로동계급앞에 뽐지 못할 난관은 있을수 없었다.

102호발전기를 시급히 정비보수해야 할 긴급과제가 나섰을 때였다.

오랜 운영과정에 발생한 부분품들의 구조변형 등을 바로잡자면 전문공장들에 의뢰하여도 짧게 잡아서 4개월은 걸려야 하였다. 발전소가 생겨 처음 있는 일인데다가 필요한 전문설비들을 갖추지 못한 형편에서 자체의 힘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발전소의 책임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속으로 들어갔다.

공화국국장에 새겨진 우리 발전소의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듯이 언제나 전력공업부문의 얼굴이 되고 본보기로 영예떨쳐온 수풍로동계급의 투쟁기풍도 영원히 계승되여야 한다. 자기 힘을 믿고 불비한 개소들을 제때에 정비보수하여 발전소운영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전세대들은 발전소를 끝끝내 복구하여 자력갱생의 본보기를 창조하지 않았는가. 그 자력자강의 바통을 이어 우리도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발전기를 살려내자!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는 일군들의 전투적인 호소에 호응하며 이곳 로동계급의 무쇠주먹들이 억세게 솟구쳤다.

들끓는 현장에 전투파지를 정한 강원식, 주학성동무들이 헌존설비들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부분품주조와 가공, 회전자유지와 철심고정을 질적으로 하면서도 보수속도를 2배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보수전투장에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래치는 속에 기술과와 공무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여러가지 금속들의 배합비률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로와 공작기계들을 만가동시켜 10개의 메탈주조와 가공을 일정계획보다 5일 앞당겨 끝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기술자들은 대담하게 종전의 인상설비로 육중한 회전자를 든든히 유지하고 유압차끼로 철심고정작업을 진행하면서 근 100℃에 달하는 필요한 작업온도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이들은 102호발전기의 회전자보수를 자체의 힘으로 단 2개월동안에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생산의 동음을 또다시 기운차게 울리였다.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 한몸그대로 성벽이 되여 발전소를 지켜내고 전시조건에서도 전력생산의 동음을 힘차게 울려 미국놈들을 진물게 하였던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이 전투장들마다에 세차게 굽이쳤다.

지난 5월 뜻밖의 심한 부하변동으로 103호발전기에 이상요소가 나타난것은 밤 2시, 무섭게 랭각수가 터져나오는 곳을 향해 장춘호동무를 비롯한 운전공들이 서슴없이 몸을 날리였다.

당장 가슴을 뚫을듯 내뿜는 불줄기를 막아 판을 그러안고 서로서로 힘을 합치며 어깨성을 쌓기를 그 몇번…

해방후 발전소언제가 무너져내릴 위험이 조성되였을 때 사품치는 물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언제구조전투를 벌리던 그때처럼, 전화의 나날 미제의 폭격기들이 괴뢰은 시한탄들을 모조리 끌어내여 발전기들을 구원해낸 전세대들처럼 1발전직장 직장장 최정선동무와 김근혁, 어룡길, 리명철, 김성준, 려춘길, 엄광복동무들도 맡그대로 결사전을 벌리였다.

마침내 103호기의 숨결을 지켜내고 발전기가 증산의 거센 동음을 더욱 힘차게 울리게 된 그 시각, 결사전의 주인공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평양하늘을 우러러 마음속으로 웨쳤다.

우리 심장이 높뛰는 한 수풍의 동음은 영원히 멎지 않을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수풍로동계급의 올해의 투쟁이야기들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 일러는 비록 조국의 서북변에 있어도 사회주의수호전,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최전연에서 싸운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하루하루의 증산투쟁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으로, 당중앙의 믿음을 지키는 격전으로 여기며 위훈을 수놓아온 전투기록은 영원히 존엄높이 빛나는 공화국국장과 더불어 수풍의 새 세대들에게 길이 전해질것이다.

증산돌격전은 곧 과학기술결사전

수력발전소에서 생산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도 둘째도 물이다. 물을 어떻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가에 따라 전력생산성과가 좌우지된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수위가 6m이상이나 낮아진 최악의 조건에서 상반년 전력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나날 수풍의 전력생산자들이 심장깊이 절감한 철리가 있다. 그것은 오늘날 과학기술이자 전력증산이라는 것이다. 부족한 물은 하늘이나 압록강이 주는것이 아니라 발전설비현대화가 가져다줄수 있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리치였다. 그러자면 발전설비현대화를 최단기간내에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결사전을 벌려야 했다.

상반년 전력생산계획을 수행할수 있는 결정적방도를 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찾은 발전소의 일군들은 4월까지 103호발전기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할 비상히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체계설계로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지 장치들의 제작과 각이한 기능의 프로그람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생소하였다.

방도나 가능성은 머리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심장에서 나온다. 과학기술결사전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뼈와 살로 새기고 증산의 길이 오직 과학기술밖에는 없다는 운명적인 각오를 가진 사람들만이 뛰여들수 있는 사상전, 두뇌전이다.

협의회에서 올린 초급당위원장 리순철동무의 불같은 토로는 모두의 가슴마다에 발전기현대화를 기어이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그것도 더 빨리, 더 훌륭히 완성하여 수풍로동계급의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할 배짱을 더해주었다.

해당 과학연구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기술과와 기술발전과, 공업기술연구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을 지니고 과학기술결사전으로 국산화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였다.

주학성, 박수림동무들이 세계적인 발전설비현대화수준을 따라잡겠다는 각오안고 전면적인 자료료해와 분석을 진행하면서 피타는 사색과 고심어린 탐구를 기울이였다.

장영수, 손영수동무들은 설비의 주요기능들을 우리 식으로 완성하기 위해 수백번의 시험을 거듭하였으며 김창호, 조정철동무들도 키발하고 독특한 착상들을 련이어 받아들이면서 프로그람개발을 다그치였다.

탐구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낮에 밤을 이어가며 개발전투를 벌리는 과정에 검쌓이는 피로로 몸을 가누지 못할 때가 많았고 많은 품을 들여 만든 장치와 프로그람들이 한순간에 허사로 되는 실패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수풍이 시대의 전렬에서 멀리 뒤떨어지게 되고 당앞에 다진 증산의 결의는 빈말로 될수 있었다.

온 발전소가 자기들을 지켜본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뼈저리게 자각하며 그들은 사색과 탐구에 온넋을 쏟아부었다.

하여 이들은 우리 식의 창조방식으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국산화된 수자식종합보호장치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끝끝내 제작해내고야말았다. 성과를 축하해주는 일군들에게 위훈의 주인공들은 이렇게 절절하게 이야기했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심장으로 웨치던 과학기술결사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과학기술결사전의 열풍속에 발전소에서는 현재까지 5대의 발전기들에 현대적인 수자식려자기와 조속기를 받아들이고 3대의 발전기들에 수자식종합보호장치를 창안도입함으로써 종전보다 대당 년간 48만㎾h의 물을 절약하면서도 수천만kWh의 전력을 더 생산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나날 발전소일군들은 모두에게 오직 과학기술결사전으로 국산화를 실현해야 전력증산의 활로를 열어제낄수 있다는 마음의 기둥, 과학적신념의 대를 더욱 억척같이 세워주었다.

콤퓨터에 의한 실시간감시체계를 개발도입하고 물관리를 과학화할수 있는 각종 프로그람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완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난관이 제기될 때마다 앞뒤를 봐가며 추진속도를 늦추자는 편향에 책임일군들은 과학기술의 봉마에 더욱 드센 박차를 가하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현대화, 국산화의 목표는 결사의 각오안고 최대의 속도로 최단기간에 점령해야 한다!

강원식, 리순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내린 단호한 구령소리는 과학기술결사전이라는 말의 참뜻을 모두에게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주학성, 김창호동무들이 현대화된 발전설비들의 조종프로그람을 우리 식으로 완성한데 이어 발전설비들에 모든 전기적량들을 실시간으로 수감할수 있는 감시체계프로그람을 개발도입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박수림, 조정철동무들도 발전소의 물관리지원체계프로그람과 발전기대들사이 합리적인 부하분배프로그람을 짧은 기간에 개발도입하였다.

이 성과는 상반년기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물량이 대폭 줄어든 조건에서도 발전설비들의 운영효률을 1.1%이상 더 높여 4 200만㎾h이상의 물을 절약하면서 많은 전력을 증산하는데 적극 이바지되였다.

비약의 활로는 오직 과학기술결사전으로 열어제껴야 함을 뼈에 새긴 수풍로동계급은 지금 새로운 X형수차를 받아들이고 3대의 효률높은 수차들을 제작도입하며 발전소의 종합생산체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구축하면서 현대화의 마지막대상인 102호발전기현대화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은 곧 과학기술결사전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전력공업부문도 례외로 될수 없다. 증산투쟁을 과학기술결사전으로 전환시킬 때만이 만리마를 탈수 있다는 시대의 진리를 수풍로동계급은 자기들의 실천투쟁으로 증명해보였다.

※ ※

나라의 대규모발전소의 하나인 수풍발전소에서 날을 따라 높이 울리는 전력증산의 동음은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 떨쳐나선 온 나라의 일터마다에 끊임없는 빛과 열을 더해주고 다발적이며 련발적인 위훈과 기적을 안아오고있다.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따라 전민총돌격전의 불길속에 사회주의강국건설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있는 오늘 전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있으며 그만큼 전력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앞에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마련된 생산토대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나라의 동력을 믿음직하게 보장해야 할 더더욱 무겁고도 책임적인 투쟁과업이 나서고있다.

자주와 선군으로 존엄높은 공화국국장에는 발전소언제가 새겨져있다.

이것은 결코 수풍발전소 로동계급만이 아닌 전력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이 자나깨나 심장에 새겨야 할 긍지이며 책임감이다.

경제건설의 전기간 나라의 전력공업을 제일 앞자리에 내세워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깊이깊이 새겨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닌 수풍발전소의 로동계급처럼 자력자강과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전력증산투쟁에 더 큰 박차를 가할 때 최후승리를 향한 내 조국의 전진속도는 비상히 높아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정순성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박 봉 주 총 리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현지료해

박봉주내각총리가 만리마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과학기술을 앞세우면서 자동차부속품생산과 조립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총리는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강의한 정신력으로 무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생산공정을 더욱 개선완비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현대적이며 다종화된 자동차들을 만들어내는데서 나서는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한편 총리는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장을 돌아보면서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사색과 실천의 목표는 오직 하나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함경남도려단 일군들과 건설자들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함경남도려단의 전투원들이 련일 높은 공사실적을 기록하며 락랑구역 동산동지구의 8-51호동 25층살림집골조완공의 날을 눈앞에 두고있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한길에서 위력한 건설부대, 공로있는 집단의 영예를 높이 떨치며 날에날마다 수놓아가는 이들의 투쟁위훈, 그것은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 결사관철의 메아리가 되여 수도의 하늘가로 힘차게 울려퍼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붙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려명거리를 만리마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린 려단의 전투원들이 이곳 살림집건설전투에 또다시 진입한것은 지난 4월말이였다.

사실 려단에는 로력과 기계장비를 비롯하여 부족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지만 이곳 전투원들은 남은 12개 층의 골조공사를 빠른 기간에 끝내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조건이 보장되기를 앉아서 기다린다면 완공의 날이 그만큼 늦어진다. 기적과 비약의 속도, 만리마속도로 주체조선의 새로운 건설신화를 창조한 우리가 이만한 난관앞에 물러설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화선병사의 자세로 공격전에 돌입한 려단전투원들모두의 확고한 결심이였다.

지휘관들이 앞채를 메고 대중을 이끄는 기관차가 되였다.

2대대장 최창학동무가 돌격선의 앞장에서 화선지휘관의 자세로 대오를 이끌며 그날전투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을 때 시공참모 리승혁동무는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시공의 속도와 질을 담보해나갔다.

자재참모 리은혁동무는 용접봉과 피대를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원만히 확보하여 작업이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하였다.

돌격대원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정치사업이 진공적으로 벌어지는 전투현장에서는 련일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졌다.

《마모된 소치차를 용착의 방법으로 재생해낸 용접공 김승필동무 려단은 널리 자랑한다》

《기술중대 공정원 동청길동무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자각으로 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해간다》

지도국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매일 공사실적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갔다. 평양기계화사업소 지배인 최철화동무는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공사자재보장을 위해 누구보다 말이 닳도록 뛰어다녔고 전력중대의 전투원들도 각종 기계 및 전기설비들에 대한 전력보장사업을 믿음직하게 해나갔다.

이뿐이 아니였다.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애국충정의 지옥을 세워가는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빈구석도 있을세라 필요한 로력보장을 위해 늘 관심을 돌리고 친혈육의 심정으로 설비와 후방토대마련을 위해 애쓴 함경남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의 뜨거운 진정은 전투원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대원들의 사기가 오르고 공사속도가 날마다 빨라졌지만 려단장 리원근동무의 생각은 깊어만졌다.

살림집층수가 높아지고 물동운반량이 증가되면서 건설장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던것이다.

제일 난문제는 려단이 가지고있는 3대의 스키프와 2대의 혼합기가동에 리용되는 전동기들이 고장으로 멎어설 때마다 작업이 중지되고 그만큼 일정계획수행이 지장을 받는것이였다.

해결방도를 찾아쥐기 위해 사색을 거듭하던 그는 고장난 전동기들을 재생하여 예비전동기를 조성할 결심을 내렸다.

대수리해야 할 전동기들은 성천강전기공장을 비롯한 함경남도안의 전기기계공장들에 보내여 새것과 다름없이 재생해오기도 하였다. 이렇게 살려낸 예비전동기들이 공사 진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놀았다는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기대관리를 짜고들고 기대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기계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부터 공사성과는 더욱 확대되였다.

어느날 새벽 작업현장을 돌아보던 려단정치부장 정병국동무는 한가지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되였다.

대대장들인 장광명, 리철갑동무들이 남먼저 일어나 작업을 선행시키고있었던것이였다.

지난밤에도 그날공사과제는 절대로 미룰수 없다며 밤늦게까지 전투장을 뜨지 않고 대오의 앞장에서 달리던 그들이였다.

이른새벽에도 공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남모르는 수고를 바쳐가는 그들의 모습에 정치일군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피곤하겠는데 좀더 쉬지 않고 왜 벌써 일어났소?》

《우리야 지휘관들이 아닙니까.》

공사시작부터 오늘까지 자기들이 일떠세우는 창조물 하나하나에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사람들의 대답은 이렇듯 소박했다.

그러나 이 짧은 한마디 말속에 자신들이 내세운 목표를 당앞에 다진 맹세로 여기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수행하기 위해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이곳 돌격대원들의 참모습이 비껴있는것 아니랴.

당정책결사관철은 우리의 모든 사색과 실천의 목표!

이 억척의 신념이 만장약된 불같은 심장들이 힘차게 고동칠 때 헌신의 불길이 전투장 그 어디에서나 세차게 타오르고 완공의 그날은 보다 앞당겨지리라는것을 우리는 이들의 투쟁을 통해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심학철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과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비서사이의 회담 진행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으로 모잠비끄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류명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아이다 리뽀부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비서사이의 회담이 13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비서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두 당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미국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조선의 모습은 모잠비끄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주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과의 친선관계를 귀중히 여기고있는 모잠비끄해방전선당의 립장은 확고하다고 하면서 그는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변함없이 강화발전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회담에는 조선로동당대표단 성원과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 주요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민족의 긍지와 영광

민족의 창창한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력사의 대장거인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완전성공으로 온 나라가 커다란 긍지와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탁월한 선군령장이시며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것은 크나큰 민족적행운이였으며 민족자주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이날을 맞으며 온 겨레는 강철의 담력과 배짱, 불같은 애국헌신으로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압력을 단호히 쳐갈기시며 백두산대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경의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는 강대한 조선의 힘이고 승리의 기치이시다.

감회도 새로운 감격의 그날로부터 흘러간 5년을 돌이켜볼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으로서의 비범한 령도풍모를 크나큰 격정속에 새겨안게 되는 우리 인민이다. 얼마나 준엄한 나날이 이땅에 흘렀던가.

원쑤들은 《제재봉피》니 뭐니 하는 헛나발을 불어대면서 자주의 성새,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없애버리려고 피를 뿜고 날뛰였다.

전대미문의 경제제재와 사상 최대의 군사적압박을 가하면서 우리를 굴복시켜보려고 달려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그야말로 발악적이였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대로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필승의 전통을 이어 총대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실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안으시고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였다. 그이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불면불휴의 선군장정은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절세의 위인만이 수놓을수 있는 영웅서사시적행로였다.

백두의 선군령장께서 찬바람, 눈비를 맞으시며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끊임없이 이어가신 최대열점지역의 바다길과 판문점, 까칠봉의 최전연초소길들, 험한 철령과 오성산의 152급이 칼버팅길을 비롯한 전선길은 오늘도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설한 조국수호, 조국통일의지를.

오늘도 우리 겨레는 주체101(2012)년 3월 판문점이 전한 력사의 이야기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적아가 총부리를 맞대고 예리하게 대치하고있는 최전선, 바로 이 위험천만한 최전방인 판문점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강인담대한 배짱앞에 세계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하신분을 높이 모시였는가를 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단행하신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받드시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실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였다. 그 몸담는 명세를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이 어린 혁명의 불은기를 높이 추켜드시고 성스러운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시였다.

그이께서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 제국주의의 침략적도전을 영원히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철옹성같이 수호하며 하루빨리 삼천리강토우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무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기 위해 바치신 크나큰 로고를 어찌 말과 글로 다 전할수 있으랴.

지금도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제시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듯싶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당의 병진로선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보검이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대대손손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게 하는 영원한 기치이다.

새로운 병진로선이 탄생하던 그때 온 겨레는 탁월한 선군정치로 치렬한 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며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켜내시고 핵보유의 대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체현하신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령장을 우러러 감격의 환호성을 터쳤다. 실로 병진로선의 제시는 그 어떤 시련과 도전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제일생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희세의 정치가, 강철의 인간만이 이룩할수 있는 민족사적공적이다.

백두의 선군령장께서 우리 식의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개발하기 위해 바치신 로고의 낮과 밤, 우리 조국을 핵강국의 진렬에 올려세우기 위해 새겨가신 자욱자욱은 또 그 얼마이던가.

우리는 오늘도 잊지 못한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성공에 바쳐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을.

위험천만한 시험장소들과 조립현장, 포연자욱한 발사장들을 찾고찾으시여 국방과학전사들과 함께 계시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숭엄한 영상, 눈물겨운 화폭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격정속에 새겨안았다.

그 무수한 날과 날이 있어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건설에서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게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였다. 지난 7월 4일 세계를 진감시킨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은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탁월한 령도로 미제의 광란적인 핵위협소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우리 조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최상의 수준으로 다져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오신 5천년민족사의 특대사변이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으로 세기를 두고 이어온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기 위한 강위력한 전략무기체계가 마련되였으며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미치광이들을 무지비하게 후려칠수 있는 핵주먹이 더욱 굳세여졌다.

정녕 우리 조국을 무적필승의 핵강국으로 빛내여주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번영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 마지않아 종지부를 찍고 이 땅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라설하

특급전쟁광의 부질없는 잔꾀

최근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수세에 몰린 미국이 분별없이 헤덤비고있다. 트럼프는 물론 미국무장관, 유엔주재 미국대사 등 고위당국자들은 저마끔 나서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느니, 《군사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느니 하며 마구 설쳐대고있다. 실제로 미핵전략폭격기 《B-1B》편대가 남조선상공에 날아들어 우리의 전략적대상물들을 노린 타격훈련을 벌려놓았다.

그런데 이런 스산한 분위기와는 달리 《비군사적대응》설을 내돌리는자가 있다. 그가 바로 미국방장관 마티스이다.

지난 6일에도 마티스는 공식석상에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과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떠들어대면서도 《북핵문제를 경제, 외교적노력》으로 다루고있다고 하며 마치도 저들이 군사적대응을 추구하지 않는듯이 딴전을 부렸다. 이보다 앞서 있은 기자회견과 미국회 하원 청문회 등에서도 마티스는 《북과의 전쟁은 최악의 재앙》으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저들이 《외교적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있는듯이 여론을 내돌렸다.

미국의 침략정책실행을 뎀 앞장에서 주판하는자의 입에서 《비군사적대응》이니, 《외교적해결》이니 하는 소리가 나온것은 실로 무지연스럽기 그지없다.

더우기 마티스로 말하면 지난 시기 해외침략전쟁에서 《전쟁광》, 《미친개》로 악명떨친 보기드문 호전분자이다. 이자가 사람을 죽이는것이 재미있다, 마주하는 누구든 죽일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등 피묻은 이발을 드러낸것으로 하여 세상사람들을 치떨리게 한적도 한두번이 아니다. 이렇듯 살륙과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자가 《비군사적대응》이니, 《외교적해결》이니 하고 떠벌이고있으니 실로 카소름기 그지없다.

그것은 승냥이가 양의 울음소리를 내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력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침략을 개시하기에 앞서 《평화》타령을 불어대면서 내외여론을 기만해왔다. 그러한 실례는 많다.

미국방장관 마티스가 우리에 대한 《비군사적대응》을 운운하고있는것도 교활한 기만술책이다. 그것은 우리의 대비경계심을 늦추어놓고 불의의 선제공격을 가하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로로서 사실상 핵전쟁도발의 전주곡이나 다름없는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우리에 대한 《비군사적대응》과 《외교적해결》을 광고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지금 미국은 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등 전략자산들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대북선제공격》기도를 실현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이런 속에 얼마전 미핵전략폭격기 《B-1B》편대가 불의에 남조선상공에 날아들어 북침선제공격을 가상한 훈련을 벌려놓은것은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움직임이다.

사태는 미국방장관 마티스가 떠드는 《비군사적대응》설이 어론을 기만하고 우리의 경계심을 흐려놓기 위한 한갖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미국은 그 누구를 떠보기 전에 상대가 동방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마티스와 같은 늙다리전쟁피물의 시끄짜리 잔꾀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장구한 조미대결의 력사를 통하여 미국의 온갖 음흉하고 교활한 침략수법들에 대해 훼뚫어볼대로 훼뚫어보았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다 대응해줄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만일 미국이 손간도 늦추어본적이 없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경각성과 필적의 의지를 오판하고 군사적선택의 길로 나온다면 가장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태평양상의 미군기지들은 물론 미국본토도 무자비한 핵불세례속에 영원히 생존불가능한 페허로 될것이라는 우리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

미제호전광들은 정각에 깔린 저들의 처지나 똑바로 알고 부질없는 잔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박철준

괴뢰군부패당의 궁색한 동영상공개놀음

천지를 진감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의 장쾌한 폭음에 얼혼이 나간 괴뢰군부패당이 그 대응책의 하나로 황급히 미국상전의 전략무기와 저들의 무기들을 동영상으로 공개하며 객기를 부리였다.

동영상에는 사거리가 수백㎞밖에 안되는 괴뢰군의 각종 미싸일발사장면과 미제침략군의 《B-1B》핵전략폭격기의 출격장면이 담겨져있다.

이와 함께 《킬 체인》, 미싸일방위체계, 《대량응징보복전략》으로 구성된 《3축타격체계》를 묘사한 장면도 들어있다.

괴뢰들의 동영상공개놀음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우리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앞에 덴겁한자들의 단말마적인 객기이며 미국상전의 옷자락에 매달려 꺼져가는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명해보려는 가련한 주구들의 궁색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수 있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통쾌한 단번성공은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라는것은 세인의 한결같은 고백이다.

이로써 주구에게 핵우산을 제공한답시고 거들먹거리던 미국은 당장 자기 머리우에 떨어질 불벼락부터 먼저 신경써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상전의 안전이자 저들의 안전이라고 고아대면서 미국을 겨냥한 우리의 핵, 로케트개발에 대해 그토록 악을 쓰며 악담질을 해대던 괴뢰들에게 있어 이것은 청천벽력이 아닐수 없다.

할애비처럼 섬기던 미국에 더는 기댈수 없는 지경에 이른 괴뢰들은 죽는것보다 까무러치는것이 더 낫다는 격으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객적은 만용에 매달리게 된것이다.

쫓기는 개가 요란히 짖듯 괴뢰호전광들이 우리의 핵조준경안에 든 미국상전의 전략자산에 아직도 미련을 두고 보잘것 없는 동영상따위나 공개하며 그 누구를 놀래우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하늘과 씨름질하는것이나 다름없는 쓸데없는 망상이다.

괴뢰호전광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남조선청년들 병역을 기피하여 외국으로 피난

10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머니투데이》에 의하면 남조선청년들이 온갖 살인적폭행이 란무하는 괴뢰군고역살이를 반대하여 외국으로 피난가고있다.

얼마전 한 청년이 《히가만은 인권유린장》으로 락인된 괴뢰군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병역기피를 위해 해외로 떠나갔다.

그는 남조선의 징병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피난길에 오르게 된 리유라고 밝히였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남조선의 낡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벌릴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남조선청년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병역기피현상은 식민지고용군에서 노예적인 고역살이를 하다가 미제의 값눅은 전쟁대포밥이 되여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대한 항거의 표시이다.

【조선중앙통신】

천하흉물들이 벌려놓은 서툰 연극

남조선에서 특대형추문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심화되면서 살구명을 찾는 박근혜일당이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이 버러지같은것들이 지금 저들의 진강이 나쁘다고 염살을 피우면서 갖은 추태를 부리고있는것은 그 한 실례이다.

박근혜역도는 구치소에서는 물론 재판과정에도 의도적으로 진강이상증세를 보이며 추하게 놀아대고있다.

얼마전 역도는 변호인을 내세워 발가락이 심하게 상해 움직이기 불편하다느니, 통증때문에 밤에 잠도 자지 못한다느니 하면서 그것을 구실로 련이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감방안에서 피상한 말로 중얼거리는 등으로 정신분렬증세가 나타난다는 여론을 내돌리고있다. 박근혜는 재판장에 나와서도 무엇인지 알수 없는 그림을 그리거나 벌안간 큰소리로 욕소를 터뜨리고 키득키득 웃기도 하는가 하면 갑자기 책상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재판이 중지되게 하기도 하였다.

박근혜의 이런 너절한 연기와 때를 맞추어 괴뢰보수언론들도 역도의 건강이상설을 적극 여론화하고있다. 보수언론들은 민심의 동정을 사볼 심산으로 박근혜가 감방에서 선풍기와 찬물로 무더위와 싸우고있다느니, 계속되는 재판으로 피로가 극심하다느니, 과일로 끼니를 대신하고 있다느니 하고 떠들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질 경우 《보석가능성이 있다.》는 풍딴지같은 소문까지 내돌리고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서울구치소측은 박근혜의 건강에 문제가 없으며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서울구치소측의 주장에 의하면 박근혜는 밥을 다쳤다고 한 다음에도 급이 높은 구두를 신고 재판장에 나왔으며 호송차에서 내려 걸을 때에도 특별한 이상증상이 없었다. 의사들도 박근혜의 상처라는것은 연고나 바를 정도이며 뼈는 전혀 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박근혜역도는 큰 부상이나 당한듯이 서툰 연극을 놀고있다.

박근혜역도뿐이 아니다.

박근혜를 인형처럼 조종하며 실제적인 권력을 틀어쥐고 온갖 못된짓을 일삼은 최순실도 어지럼증으로 구치소안에서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심문을 제한해달라고 앙탈을 부리고 있다.

박근혜의 심복이며 공범자인 전 피뢰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심장병이 심하다고 뻐병을 부리면서 제발 감옥밖에서 죽게 해달라고 넉두리질을 해대고있다.

원래 뻔뻔스러움을 천성으로 타고난 족속들인지라 실로 역스럽게 놀아대고있다. 권력을 쥐였을 때에는 민중을 개, 돼지로 취급하며 그들의 참상에는 눈을 감고 온갖 악행을 다하던자들이 감옥에 처박히게 되자 이제는 살아보겠다고 불쌍한 흉내를 피우며 인민들에게 동정을 구걸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낯가죽이 뜸발통같은자들인가.

사람들은 박근혜일당의 추태를 지켜보며 년놈들이야말로 천하에 보기 드문 흉물들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새겨안고있다. 하기야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권모술수만 쓰고 부정협잡질에만 미쳐돌아가던자들에게 있어서 그쯤한 염살을 떠는것은 아무것도 아닐것이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은 오산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건강이 어쩌니저쩌니 하며 요술을 피우는 박근혜일당의 속심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건강상태를 내돌고 동정여론을 불러일으켜 병보석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오거나 재판기일을 연기하여 1심구속기간을 넘기고 구치소신세를 면하며 형량을 줄이자는것이 박근혜와 그 패거리들의 계책이다.

박근혜역도의 1심구속기간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10월 중순까지이다. 이때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역도는 자동적으로 석방되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노리고 박근혜일당은 유치한 연극을 놀고있는것이다.

박근혜일당의 추태는 초불민심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역도와 그 일당이 통지참해도 씨원치 않을 특대형범죄를 저지르고도 꼬물만 한 죄책감이나 반성도 없이 뻔뻔스럽게 놀아대는데 대해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더러운 명줄을 부지하려고 어리석은 잔꾀를 부리며 초불민심을 우롱하는 인간추물들을 절대로 용서치 말고 무자비하게 처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인터네트에도 박근혜패거리들의 추태는 핑계에 불과하다, 너절하게 놀지 말라고 비난, 조소하는 글들이 수없이 오르고 있다.

박근혜일당이 아무리 온갖 술책을 다 쓰며 발버둥질을 해도 그것은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깊숙이 파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될뿐이다.

박근혜일당은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는 얄팍한 술수로 민심을 기만하려 할것이 아니라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고스란히 받는것이 마땅하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구미여우같은자들의 노예에 속지 말고 투쟁의 초불을 높이 들면 그 기세로 가증스러운 박근혜역도와 그 일당에게 준엄한 징벌의 철추를 내려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장일향

우리 당이 바라는 만리마시대의 참된 일군들

대외건설지도국 국장 김강진동무와 륙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 국장 홍승철동무에 대한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만리마시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을 닮은 용감무쌍한 실천가형의 일군들이 자라나는 자랑스러운 시대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는 대외건설지도국 국장 김강진동무와 륙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 국장 홍승철동무도 그런 실천가들이다.

그들의 투쟁정신과 일본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앞장에 선 우리 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로 된다.

※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일군들은 당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당의 정책과 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대외건설지도국 국장 김강진동무와 륙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 국장 홍승철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사업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면밀한 작전과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투쟁기풍을 발휘하여 언제나 당정책관철에서 앞장서왔다.

려명거리건설이 끝난 후 대외건설지도국앞에는 다른 중요대상들을 건설해야 할 과업이 맡겨졌다.

특히 락랑구역 통산동지구의 살림집건설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중요한 전투과제였다.

국장 김강진동무는 밤낮도록 살림집건설장을 밟아보고 또 밟아보며 현실적조건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얼마후 그는 지도국당책임일군과 마주앉았다.

《어떻습니까? 방대한 공사과제들을 우리 힘으로 할수 있겠습니까?》

당책임일군의 나직한 물음이였다. 침묵이 흘렀다. 자재와 로력을 비롯하여 제기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이윽고 김강진동무의 목소리가 울렸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집행을 놓고 흥정하겠습니까.》

그렇다. 인민들에게 훌륭한 살림집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안겨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고 당정책이였다.

대답은 길지 않았지만 김강진동무의 목소리에는 당정책을 기어이 관철하고야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비껴있었다.

《어서 돌격구령을 내리십시오. 제가 힘껏 돕겠습니다.》

그리는 당책임일군을 바라보는 김강진동무의 눈가에 려명거리건설때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지난해 려명거리건설초기 지도국앞에는 어려동의 낡은 건물들을 해체하여야 할 과제가 제기되였다. 그 건물들을 한시바삐 해체하고 버력을 처리해야 그 자리에 어려동의 고층건물을 새로 일떠세울수 있었다. 방대한 작업량에 비해볼 때 로력도 시간도 실로 긴장했다. 바로 그러한 때 지도국당위원회 책임일군은 해체작업에 중기계를 리용할 대담한 결심을 하였다. 급착기를 낡은 건물들우에 올려놓고 해체전투를 벌리자는것이였다. 만약 건물들의 외벽이 통째로 넘어지는 날이면 어떤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초래되겠는가를 그도 잘 알고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급착기운전공들까지도 주저하고있을 때 당책임일군은 시슴없이 운전칸에 올라앉았다. …

(이런 당일군과 함께라면 내 무엇을 주저하랴.)

다음날 진행된 국일군들의 협의회를 김강진동무는 이렇게 결속지었다.

《당정책관철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어이 맡은 대상공사들을 제기일내에 끝내고 당에 충성의 보고를 드립시다.》

당정책관철은 우리의 생명!

짧은 그 말속에는 아무리 조건이 어려워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기어이 관철하려는 결사의 각오와 의지가 떡박쳤다.

그리하여 새 살림집건설문제가 심중히 토의되고 맡은 대상공사들을 최단기간내에 끝내기 위한 건설전투가 시작되였다.

그때 대외건설지도국이 맡고있는 중요건설대상은 10여개나 되였다. 지도국에서는 그 모든 대상공사들 하나도 놓침이 없이 립체적으로 내밀어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손색없이 해제끼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루에도 여러차례씩 모든 현장들을 직접 밟으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료해하고 즉석에서 풀어주는것은 김강진동무의 어길수 없는 사업준칙이다.

최근년간에만도 대외건설지도국에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개건공사, 자연박물관건설과 중앙동물원개건공사, 조선혁명박물관개건공사를 비롯하여 많은 대상공사를 말아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다.

지도국안의 건설자들은 이 자랑찬 성과는 하늘이 준 우연이 아니라 당정책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관철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김강진동무와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안아온 결과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있다.

륙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 국장 홍승철동무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결사관철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지난해 청진뻐스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새형의 뻐스를 생산하여 당 제7차대회에 자랑찬 로력적선물로 드리였다.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전시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진뻐스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뻐스를 보시고 잘 만들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때 이 소식을 전해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와하였다. 불과 몇해전까지만 해도 거의 주저앉다싶이 하였던 공장이 아니였던가.

청진뻐스공장이 거둔 빛나는 성과속에는 홍승철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이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청진뻐스공장의 개건공사를 맡기한 사람도, 그 전투를 앞장에서 이끈 일군도 다름아닌 홍승철동무였다.

동무들, 당적량심을 가지고 대답해보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는 공장, 그런 당원들이 과연 어디에 필요하겠는가. 기어이 공장을 추켜세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자.

홍승철동무의 불같은 호소에 당원들이 화답해나섰고 온 공장이 따라섰다. 성당위원회일군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는 그에게 큰 힘을 안겨주었다.

전국의 자동차운수사업을 책임진 홍승철동무에게는 참으로 일감이 많았고 시간은 모자랐다. 하지만 그처럼 바쁜 속에서도 그는 건설장에 붙어살다싶이 하였다. 그는 지도일군이기 전에 설계일군, 자재일군, 시공일군이였고 평범한 전투원이였다.

홍승철동무가 당 제7차대회에 드릴 새형의 뻐스생산전투의 나날 협동품보장을 위해 정성과 함흥땅을 하루에도 두세번씩 오갔다는 한가지 사실만 놓고서도 그가 전투의 승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품을 들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지난 1월 어느날 판리국아래 기동려단으로 홍승철동무가 불어섰다. 그의 손에는 많은 차부속품들이 들려있었다. 며칠전 《자동차실동률을 높이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지.》라고 외우며 낡은 화물자동차주위를 오래도록 맴돌던 그였다.

기동려단의 수리공들과 힘을 합쳐 끝끝내 화물자동차를 되살려낸 그날에도 그는 두눈을 슴벅이며 이렇게 속삭이였다.

《자동차실동률을 높이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다.》

그 일을 계기로 판리국에 화물자동차들을 알뜰히 판리하고 그 실동률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이 일었다. 하여 판리국에서는 올해에만도 여러대의 화물자동차들을 원상복구하여 자동차실동률을 훨씬 높이게 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판리국에서 수도시민들의 식량보장과 관련한 수송지휘를 짜고들어 해마다 수만t의 량곡을 제기일내에 수송보장하고 수십개의 중요대상들에서 제기되는 수십만t의 물동을 제때에 원만히 수송하도록 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은것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판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지난 6월 중순까지 판리국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할수 있은것도 홍승철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경제봉쇄책동이 극도에 이른 지금 그 어떤 어렵고 방대한 과업도 능숙히 처리해나가는 대외건설지도국 국장 김강진동무와 륙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 국장 홍승철동무의 혁명적인 일본새의 기초에는 무엇이 놓여있는가.

얼마전 홍승철동무는 인민들의 교통문제를 풀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깊이 새기고 판리국안의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능력을 더욱 크게 조성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성책임일군에게 그 공사진행안을 제기하였다.

아직 성적으로 진행되고있는 방대한 공사들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연유사정도 몹시 긴장한 때여서 그의 제기는 참으로 놀라운것이였다.

그날 홍승철동무는 성의 책임일군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과시하며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대지를 박차고 솟구쳐오르는 탄도로케트들을 볼 때마다 정말 생각이 많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배짱과 담력으로 일해나간다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배심이 든든해집니다.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이것은 대외건설지도국 국장 김강진동무의 신념이기도 하다.

일이 잘되고 실적이 뚜렷한 단위의 일군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한가지 공통점을 찾아보군 한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각오와 관점이 그 누구보다 열렬하고 투철한것이다.

대외건설지도국 국장 김강진동무와 륙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 국장 홍승철동무에게서도 우리는 그런 신념화된 충실성을 느낄수 있었다.

대외건설지도국청사정면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양상을 정중히 모실수 있은것도, 지도국회의실을 훌륭히 개건할수 있은것도 국장 김강진동무의 불같은 충정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지도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의 비품들마다에도, 청사정면의 화강석과 현판흘의 타일들에도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그의 불같은 충정이 깃들어있다.

륙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 아래단위들의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들에는 홍승철동무의 손길이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는가.

지난 5년세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는 사업과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깨끗한 충정을 다 바치는 나날에 홍승철동무와 그의 가정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다.

대외건설지도국 국장 김강진동무와 륙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 국장 홍승철동무, 그들은 혁명적원칙앞에서는 추호의 양보도 모르는 강한 원칙성의 소유자들이고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살펴줄 때에는 인정미가 넘치는 만형이다.

오래전에 순직한 종업원들의 가족들의 생활까지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는 일군이 김강진동무였고 함흥시에 살고있는 한 로동자의 얼굴에 비낀 병색까지 알아보고 중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한 사람이 바로 홍승철동무였다.

이런 일군들을 누가 따르지 않으며 이런 일군들이 있는 단위가 어찌 혁명열, 투쟁열로 끓지 않을수 있으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외건설지도국 국장 김강진동무와 륙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 국장 홍승철동무, 그들은 혁명적원칙앞에서는 추호의 양보도 모르는 강한 원칙성의 소유자들이고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살펴줄 때에는 인정미가 넘치는 만형이다.

오래전에 순직한 종업원들의 가족들의 생활까지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는 일군이 김강진동무였고 함흥시에 살고있는 한 로동자의 얼굴에 비낀 병색까지 알아보고 중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한 사람이 바로 홍승철동무였다.

이런 일군들을 누가 따르지 않으며 이런 일군들이 있는 단위가 어찌 혁명열, 투쟁열로 끓지 않을수 있으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외건설지도국 국장 김강진동무와 륙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 국장 홍승철동무의 소행자료를 보고받으시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의 전렬에 서있는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은 없다.

본사기자 리경일

조선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국제사회계가 강조

얼마전 남아프리카의 프레토리아시와 츠와네시에서는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의 관심속에 우리 나라 사진전시회가 열리였다.

날로 비약하며 발전하는 주체조선의 자랑찬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은 서방의 거짓선전만 들어오던 이 나라 사람들에게 참으로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프레토리아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 학생들은 어린이들속에서 환히 웃고계시는 김정은령도자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그이께서는 어린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것 같다, 또한 그이는 인민을 극진히 생각하시는 진정한 인민의 지도자이심이 틀림없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그들은 조선의 현실을 사진전시회를 통해 알게 되니 정말이지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지구상에 세금이 없는 나라, 정부가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아마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것이다, 조선인민이 부럽기만 하다, 조선에 한번 가보고싶다, 이런 사진전시회를 자주 진행하길 바란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찬사의 목소리는 이들만이 아닌 광범한 국제사회계에서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학술서기 아나스따시야 올레고브나 바란니꼬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과 서방은 조선의 《인권문제》를 놓고 떠들기에 앞서 이 나라의 현실을 아는것이 중요하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이 온갖 사회적혜택속에 살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국가의 부담으로 근로인민모두가 마음껏 배울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조선에는 실업자가 없다.

미국의 인터네트웨브싸이트 《구글뉴스》, 인터네트홈페지 《레디트》는 김정은령도자의 세심한 지도밑에 려명거리가 완공되였다, 조선은 2015년에도 미래과학자거리를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시책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자리잡고 훌륭한 가구들까지 갖추어진 최고급살림집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들이 김정은령도자께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고 보도하였다.

몽고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작갈린 레디아 미뜰로 보건 및 인구상은 조선에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뚜렷이 과시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고려의학연구원을 비롯한 의료봉사기지들의 설비들 하나하나가 매우 현대적이고 의사들의 의술도 대단히 높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이러한 병원들에서 인민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는것이였다.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는다는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조선에서는 병원들뿐아니라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마식령스키장만 보아도 그것을 알수 있다.

인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이처럼 멋진 대중체육봉사기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참관을 통하여 한평생 인민을 위하신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의 업적에 대해서와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 조선의 인민적시책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성원 루까슈 브로벨은 방문기에서 조선은 여러 분야에 걸쳐 현대화를 다그치며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걷고있다, 시간이 다르게 변모되는 화려한 거리들이 계속 일떠서고있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집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사람을 찾아볼수 없다, 조선정부는 인민을 위한 사업에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스위스공산당 총비서 마씨밀리아노 아이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에서는 후대들을 위한 일을 나라의 중대사로 여기고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조선방문기간 평양중등학원에서 받은 충격은 매우 크다.

훌륭한 교육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학원에서 원아들은 책가방, 학용품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것을 나라에서 공급받으며 공부하고있다.

당과 국가가 베풀어주는 사랑과 은정속에 학원의 원아들은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생활하면서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나고있다.

후대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조선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　＊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조국의 불패의 위용을 목격한 스웨리예의 공산당대표단 단장 로베르트 마리아쏜은 흥분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조선의 경이적인 발전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체류기간 가장 인상깊은것은 수도 평양의 모습이다.

과학기술전당,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비롯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과 황홀한 거리들을 돌아보며 받은 감명은 실로 크다.

나날이 변모되고있는 평양은 영웅적조선인민의 창조적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보여주고있다.

특히 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로 조화를 이룬 려명거리는 그 규모와 형식에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

이렇듯 거창한 전변을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이룩하였다는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더욱 경탄케 하는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 모든 기적과 성과를 조선인민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체의 힘으로 달성하였다는 사실이다.

세인을 놀래우는 조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나 서방언론들은 이렇게 훌륭한 모든것을 무시하고 조선에 대한 거짓선전만을 일삼고있다.

조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고있는 일부 어용보도매체들의 비난이 심히 외곡된 온당치 못한것들이며 현실과는 완전히 딴판이라는것을 방문의 나날에 똑똑히 알게 되였다.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봉쇄와 제재속에서도 조선의 경제는 자기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급속히 발전하고있으며 인민을 위한 새로운 건물들과 병원들, 살림집들, 문화정서기지들이 앞을 다투어 일떠서고있다.

근로대중모두가 로동의 참된 주인, 문명의 향유자로 되여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하기에 그 어디에 가보아도 조선인민모두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글발을 볼수 있다.

날로 강성부흥하는 조선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주의나라이다.

조선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비약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자주의 신념, 자력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향도하여온 조선로동당의 투쟁경험은 스웨리예의 공산당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두 당사이의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나가겠다.

여러 나라 단체들 성명 발표

핵전쟁위협에 종지부를 찍는 사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주체철학연구소조, 선군정치연구소조, 자력갱생연구소조가 6일 련합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책동속에서도 조선을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핵무기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전략잠수함 탄도탄보유국으로 급상승시키신데 이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도록 이끄시였다.

조선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단번에 성공시킴으로써 주체조선의 자주적존엄과 영웅적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이번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조선인민이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을 열렬히 축하하며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것을 축원한다.

＊　＊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여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의 지도밑에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이로써 조선은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을 통과하였다.

《화성-14》형시험발사는 미제의 면전에서 터친 장쾌한 뢰성이며 핵전쟁위협에 종지부를 찍는 사변으로 된다.

또한 이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기여로 된다.

우리는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께와 조선의 당, 국가, 군대, 인민에게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성공과 관련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조선중앙통신】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체스꼬에서는 련대성집회가, 오스트리아에서는 강연회가, 나이제리아에서는 영화감상회가 6월 16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6월 25일은 미국이 조선전쟁을 도발한 날이며 1953년 7월 27일은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미제를 타승한 날이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도발적인 핵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시키고있다.

조선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깃들고 조선민족의 분렬을 끝장내자면 미국이 남조선에서 저들의 무력을 당장 철수하여야 한다.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명예위원장은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악랄한 핵전쟁위협속에서 조선인민은 평화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조선인민은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계속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오스트리아 고오스트리아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청년소조 책임자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무력침공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나이제리아의 여러 인사들은 우리 나라 영화 《38분계선은 누가 그었는가》를 감상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기적적인 승리는 김일성주석의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전법, 명철한 령군술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였다, 오늘 김정은각하를 진두에 모신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나라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고있다고 찬양하였다.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성명 발표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가 6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거짓선전을 일삼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세계인민들에게 호소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6월 25일은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 때로부터 67년이 되는 날이다.

조선전쟁시기 미국이 저지른 만행들은 세계전쟁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비인도주의적인 범죄이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체결로 전쟁은 일단 중지되였지만 아직까지도 조선반도에는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있다.

조선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시종일관 요구하여왔다.

허나 미국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핵전쟁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키고있다.

조선은 미국의 무모한 핵공갈에 대처하여 핵보유를 선택하지 않을수 없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은 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할뿐아니라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조선인민은 평화를 귀중히 여기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피하려 하지도 않는다.

미국은 침략전쟁책동에 매여달릴수록 가장 비참한 멸망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해소하고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행동은 자멸을 앞당기는 망동

로씨야인사들 주장

로씨야인사들이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에 미국은 아무런 대응도 못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군사전문가인 위또르 무라홉스끼는 미국이 조선반도수역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전개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 미국식힘의 시위에 불과하다. 그것은 미국의 군사적타격에 조선은 반드시 핵으로 대응할것이기때문이다.

미국의 군사적행동은 자멸을 앞당기는 망동으로 될것이며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모험을 할 용기가 없다고 본다.

안드레이 란꼬브교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이 미국의 《독립절》에 진행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는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조선은 자기 할바를 한다는 신호로 된다.

많은 나라들이 압력을 가한다고 하여도 조선의 립장은 변함이 없을것이다.

미국이 이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조선에 대한 군사적공격은 전면전쟁으로 번져질것이다.

이번에도 미국은 《의미가 없는》 위협성명이나 발표하고 점차 조용해질것이다.

조선이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자기를 지키기 위해 취하고있는 조치들은 정당한것이다.

테로반대투쟁을 강화할 립장 천명

에짚트대통령 아브둘 파타흐 알 씨씨가 12일 아랍나라 공보상들과의 담화석상에서 연설하면서 테로와의 투쟁을 강화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최근년간 국내에서 테로에 의한 많은 피해가 초래된데 대해 언급하면서 자기 나라는 테로단체들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막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사람들이 아랍나라들에서 날로 확대되는 테로위협을 똑바로 인식하고 반테로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는데서 공보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 포괄적인 전략을 세우고 전사회적으로 테로와의 싸움을 적극 벌려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미국방장관의 망발을 규탄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상이 11일 자기 나라 내정에 대한 미국방장관의 간섭적인 망발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미국방장관이 이란인민과 정부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있는것처럼 묘사하면서 정권교체를 주장해나선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국제법의 모든 원칙들에 배치되는 행위로 단죄하였다.

그는 정신착란증환자만이 그러한 망발을 늘어놓을수 있다고 조소하고 력사발전에 대한 미국의 무지, 패권주의적태도, 오전성이 그와 같은 그릇된 주장을 낳았다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침략전쟁준비책동

－미국이 10일 리트비아에 《패트리오트》미싸일방위체계를 전개하였다.

밝혀진데 의하면 나토군사연습의 명목으로 배비된 《패트리오트》미싸일방위체계는 장거리미싸일방위체계라고 한다.

지금까지 발트해연안 나라들인 리트비아와 라트비아, 에스또니아에는 단거리미싸일방위체계만 있었으며 장거리미싸일방위체계가 전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유럽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은 지역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있다.

－일본《자위대》가 9일 홋가이도 다이끼정의 하마다이끼훈련장에서 상륙훈련을 감행하였다.

륙해공《자위대》가 련대하여 부대를 신속히 이동시키는 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약 80명의 륙상《자위대》대원들과 약 20대의 땅크와 장갑차가 동원되였다.

훈련에서는 해상《자위대》의 수송함으로부터 상륙한 땅크와 장갑차의 엄호를 받으며 무장한 대원들이 륙지에 전개하는 놀음이 발광적으로 벌어졌다.

여러 나라들 협조

딴마와 캄보쟈가 11일 교육과 문화, 무역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호상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와 호르바트까는 관광, 경제 등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빈번히 감행되는 군사적공격행위

얼마전 이스라엘군이 저들이 강점한 골란고원지역에 두발의 박격포탄이 떨어진것을 놓고 그 무슨 보복을 운운하면서 수리아정부군 포진지를 타격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6월 30일에도 군용기들을 동원하여 불의에 수리아정부군의 박격포진지에 공습을 가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최근에 여러차례에 걸쳐 수리아정부군의 진지들과 장갑무력, 탄약수송차행렬을 목표로 한 군사적공격을 단행하였다.

그로 하여 수리아정부군측에서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군사기술기재들이 파괴되였으며 지어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목숨을 잃는 참사가 빚어졌다.

수리아는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테로단체들을 지원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고 까밝혔다. 로씨야와 이란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행위를 국제법과 원칙들에 배치되는 엄중한 침략행위로, 지역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군사적망동으로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욱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있다. 이스라엘수상 네타냐후는 수리아에 대한 군사적타격은 정정당당한 대응타격이라느니, 자기들에 대한 그 어떤 발포에도 강한 반격을 가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력설해대며 대결광기를 드러내놓았다.

네타냐후의 망발은 저들의 침략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한갖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수리아에서는 《이슬람교국가》를 완전소탕하기 위한 작전이 마지막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테로분자들과의 전투는 수리아와 이스라엘사이의 접경지역인 골란고원부근에서도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저들이 비법적으로 강점한 지역에 오발된 발사체들이 떨어진것을 놓고 수리아정부군이 주권침해를 하였다고 떠들어대면서 이것을 수리아를 반대하는 군사적공격의 구실로 삼고있는것이다.

이스라엘이 떠드는 주권침해란 당치않은것이다.

골란고원은 사실상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시기에 이스라엘이 비법적으로 강점한 수리아의 령토이다. 수리아가 1973년에 있은 제4차 중동전쟁때 강점당한 골란고원의 일부를 되찾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대부분지역은 이스라엘이 통제하고있다. 이곳에 수리아에서 오발된 발사체들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작정 그것을 주권침해로 매도하며 수리아정부군에 군사적타격을 가하는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망동이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명백하다.

《즉시적이고도 단호한 대응타격》을 통해 강력한 《주권수호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골란고원이 포기할수 없는 저들의 영원한 《령토》라는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켜보자는것이다. 또한 이 기회에 수리아정부군을 약화시키고 테로분자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어 수리아가 테로분자들과의 싸움으로 미처 정신을 차릴수 없게 하자는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수리아내전이 점차 평정되여가는데 대하여 몹시 우려하고있다. 그것은 이전 시기부터 골란고원을 이스라엘로부터 반드시 되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오던 수리아정부가 현 사태를 완전히 수습하는 경우 다시금 령토반환문제를 들고나올수 있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은 수리아내전에 대해 겉으로는 불간섭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실지로는 수리아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해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대며 군사적공격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이스라엘은 수리아를 적대시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의 간섭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 수리아가 내전종식에 몰두하고있는 형편에서 저들의 행위가 크게 문제시되지 않으리라고 타산하고있다. 실지로 서방세계는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군사적만행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있다. 이스라엘을 중동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태도는 이처럼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이스라엘의 파렴치한 망동과 그를 묵인조장하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나라의 평화와 령토완정을 이룩하기 위한 수리아정부의 투쟁과 노력을 가로막아나서는 또 하나의 엄중한 도전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안 철 권

날로 고립되여가는 미국

얼마전 도이췰란드의 함부르그에서 20개국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장성을 추동하고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킬 목적밑에 열리였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초대국으로 자처하며 거들먹거리던 미국이 이례적으로 참가국들의 배척을 당하였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자국의 리익만을 우선시한 일방적요구를 제기하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댔다. 빠리협정의 리행문제토의에서도 바로 그러하였다.

미국을 제외한 19개 참가국들은 이미 서명한 빠리협정의 리행에 곧 착수하는 문제에서 견해일치를 보았다. 하지만 유독 미국만이 재협상을 제기하였다.

이미 빠리협정을 미국에 해를 주는 불공평한 협정이라고 탈퇴으며 일방적인 탈퇴를 선포한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이번 회의에서 어떻게 하나 빠리협정의 리행을 재협상의 방법으로 회피해보려고 끈질기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로 차례진것은 랭대뿐이였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빠리협정에서의 탈퇴를 선포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제회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다른 참가국들과 미국과의 있을수 있는 이러저러한 타협가능성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였었다.

하지만 타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리기적이고 독단적인 트럼프의 태도는 다른 수뇌자들과의 의견대립만을 야기시켰으며 회의는 19 대 1의 대립구도속에서 첨예하게 진행되였다.

19개 참가국들은 모두 빠리협정체결을 《되돌려세울수 없는 국제협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없이도 협정을 무조건 리행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미국의 동맹국, 추종국들까지도 트럼프를 맹비난하며 배척해나섰다.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빠리협정은 바꾸어놓을수 없으며 미국이 탈퇴한데 대하여 주목한다는 내용이 쪼아박혀진것은 미국에 대한 각국의 불만과 격분을 엿볼수 있게 하였다.

회의기념을 위한 사진촬영시 트럼프는 바깥쪽에 자리를 배정받는 수모까지 당하였다. 개밥에 도토리신세가 된 미국의 처지는 그야말로 가련하기 그지없었다. 오죽하면 여론들이 이번 회의명칭과 관련하여 20개국수뇌자회의가 아니라 19개국수뇌자회의라고 조소를 퍼부었겠는가. 세계환경보호단체들이 미국이 외토리신세가 되였다고 야유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이번 20개국수뇌자회의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여가고있다는것을 크게 부각시킨 계기로 되였다.

외신들은 《트럼프의 완전한 고립》으로 비쳐진 이번 회의결과를 놓고 미국의 지위가 확고히 내리막길에 들어서고있다고 이구동성으로 평하였다.

영국신문들인 《파이넨셜 타임스》, 《가디언》 등은 미국내에서 로씨야내통의혹사건으로 특검수사에 직면하는 등 극도의 정치적위기에 몰린 트럼프에게는 세계를 선도할만 한 능력이 없다, 그는 미국의 고립만 더욱 부각시켰다라고 보도하였다.

트럼프가 국내에서뿐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이처럼 몰리우고 따돌림을 당하고있는것은 제스스로가 초래한 응당한 귀결이다. 《미국제일주의》정책을 표방하며 오만과 전횡을 부리다 못해 나중에는 세계가 그토록 중시하는 기후변화문제에서까지 제 리속만을 고집하면서 강짜를 부리는 그를 과연 누가 좋다고 하겠는가.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옳으며 세계가 무조건 자기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패권주의적사고방식은 불피코 고립과 파멸을 불러오기마련이다. 20개국수뇌자회의가 이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실증해주었다.

본사기자

증대되고있는 핵공포증

최근 일본에서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놀라운 사실이 전해졌다. 핵물질을 넣은 4 570여개의 용기들이 아무런 안전보장대책도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되여있었던것이다.

문제의 핵용기들은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여러 연구소들에서 관리하고있었다. 원래 핵물질을 넣은 용기는 규정상 반드시 방사선 및 림계방지대책이 갖추어진 전용에 보관하게 되여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핵용기들을 저장장소밖에 그것도 최고 35년이상이나 내버려두고있었다고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한 연구소에서는 지난 6월에 피해를 입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도꾜신붕》의 기자가 원자력규제청을 취재하는 과정에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였다.

특별보관해야 할 위험한 핵물질이 수십년간이나 되는대로 처박혀있었다는 소식에 일본인들이 얼마나 몸서리를 쳤겠는가는 가히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일본인들의 핵공포증은 특별하다고 할수 있다. 일본은 지난 세기 중엽 미국이 투하한 원자탄에 의해 끔찍한 핵참화를 당했다. 2011년에는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에서의 련속폭발사고로 대규모방사능피해까지 입었다. 이 사고로 인한 피해의 후과는 아직도 가셔지지 못하고있는 상태이다.

그런것만큼 국내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있다. 원자력규제청담당자는 《원자력전문가들의 집단으로서 다른 사업가들의 모범으로 되여야 할 조직이 이렇게 한심하게 일할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를 비난하였다.

한편 이렇듯 무책임한 기구가 후꾸이현에 있는 고속증식원자로 《몬쥬》의 폐쇄작업을 맡은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앞으로 수십년이 걸릴것으로 예견되는 《몬쥬》의 폐쇄작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경우 엄청난 핵재난을 초래할수 있기때문이다. 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가 《안전하게 원자로폐쇄작업을 진행할수 있는 조직이 못된다. 매우 불안하다.》라고 말한것은 우연치 않다.

한마디로 온 일본이 핵용기방치사건으로 벌둥지를 쑤셔놓은것처럼 법석이고있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실태를 놓고 기회만 있으면 그 누구의 《핵위협》에 대해 피대를 돋구고있는 현 집권세력에게 묻고있다. 과연 누가 일본인들을 핵위협속에서 살게 하고있는가.

그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다름아닌 일본자신이 위험천만한 핵위기를 초래하고있다는것이다.

패망후 일본의 력대 집권세력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손에 넣어 과거의 치욕을 씻고야말겠다는 야망밑에 욕심스레 핵물질을 끊임없이 비축해왔다. 결국 오늘의 사태는 핵야망에 환장이 된 일본스스로가 몰아온것이다.

그런데도 제 잘못은 다 덮어버리고 군국화야망에 들떠 무작정 외부의 《핵위협》에 대해서만 비린청을 뽑고있으니 쓴웃음이 나가지 않을수 없다.

일본은 남을 걸고들 체면이 없다. 공정한 여론들이 일본은 남에게 삿대질하기 전에 제 집안일부터 바로잡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충고하고있는것은 응당하다.

본사기자

ㄱ-71112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